

## 農水産部 重點施策에 關한 農民輿論 調查結果

李 東 奎 (責任研究員)

- I. 머리말
- II. 概 況
- III. 調查內容 및 分析結果
- IV. 調查 및 分析의 問題點

### I. 머리말

本 調查는 質과 量的인 面에서 急激한 變化가 進行中인 農漁村經濟의 構造的인 再編成을 成功的으로 이룩하기 위하여 農漁村現場의 農漁民의 소리를 迅速, 正確하게 蒐集, 整理分析하여 農政施策 基礎資料로 提示하는 本研究院 固有業務의 一環으로 進行하였다.

#### 1. 調查目的

가. 農政 10大重點施策에 關한 農民의 意思 把握

나. 成功的으로 施策을 遂行하기 爲한 方向 提示

다. 農民들의 參與意識을 鼓吹

#### 2. 調查對象

새마을指導者 및 一般農民 1,500名

#### 3. 標本選定方法

가. 標本設計는 層化抽出方法을 採擇하였으 며 第一次 抽出單位(P.S.U)는 部落(先進部落, 後進部落, 새마을研修部落) 第二次 抽出單位(S.S.U)는 農民(指導者, 一般農民)으로 하였다.

#### 4. 調查事項

가. 調查對象者의 人口, 社會, 經濟, 地理學的인 一般背景

나. 農作物 栽培面積, 畜産, 農村勞賃, 農外 所得源, 農村人口, 農村機械化, 營農活動, 要望 事項 等.

#### 5. 調查方法

郵便設問紙 調查를 실시했다. 市·郡指導所 및 邑面支所를 利用하여 選定된 調查對象者에게 設問紙를 配付하였다. (回收率 58.1%).

#### 6. 分析方法

가. 栽培面積, 畜産, 勞賃, 農外所得, 農村人口, 農業機械化, 營農活動 및 要望事項은 從屬 變數로 하고 說明變數로서 調查對象者의 人口, 社會, 經濟, 地理學的 變數를 取하여 相互交叉 시켜 頻度表(cross tabulation table)을 作成하였다.

나. Data處理 및 統計의 分析은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에 의하여 컴퓨터로 처리하였다.

### II. 概 況

이번 調查는 農水産부가 '78年의 農政目標을 食糧增産, 所得增大, 自力開發에 두고 이의 達成을 爲하여 意慾的인 10大 重點施策을 推進

하고 있는데 各 施策別로 農民의 意識狀況과 輿論을 파악하는데 目的을 두었다.

全國 農村指導所 支所當 3개 部落, 部落當 5名씩 총 19,960名을 調査對象者로 選定하였다. 그중 회신한 사람은 11,600名으로 回收率 58.1%였다.

分析方法은 회신한 11,600名중 1,500名을 道別 農家戶數比例로 無作爲 抽出하였으며, 記入不良한 7名을 除外한 1,493名의 應答을 分析하였다.

<表 1> 地域別 分布

道別 區分	京畿	江原	忠北	忠南	全北	全南	慶北	慶南	濟州	計
農家分布 (%)	11.0	5.7	6.9	12.7	11.4	18.4	17.5	14.0	2.4	100.0
調査者分布 (%)	11.0	6.3	6.9	11.7	12.1	16.7	17.4	15.8	2.1	100.0
調査者數 (名)	164	94	103	175	180	250	260	236	31	1,493

\* 標本農民中 一般農民이 1,000名으로 67%를 차지하고, 새마을指導者는 493名이었다.

性別構成을 보면 調査對象이 세대주와, 새마을 指導者이었기 때문에 男子가 72%, 女子가 28%이었다.

年齡別 分布는 30세미만 10.3%, 30대 32.3% 40대가 全體의 45%로 가장 많았으며, 50대 11.0%였고, 60대이상은 1.3%에 불과했다.

學力別 分布는 國卒이 37.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中卒이 35.8% 高卒以上이 23.3%로 나타났으며, 無學은 3.2%로 가장 적게 分布되어 全國 農家의 平均學力 보다 상당히 높은 水準이었다.

耕地規模別 分布를 보면 耕地가 없는 農家의 '76年 全國平均이 4.5%인데에 比하여 1.5%이었고 0.5ha미만農家は 全國平均이 29.4%인데 標本平均은 15.0%이었다.

0.5ha~1.0ha 農家は 가장 많은 分布를 보여

전국平均 34.9%에 比하여 38.8%이었고 1.0ha~1.5ha階層은 전국平均 17.8%에 比하여 29.1%였다.

1.5ha~2.0ha農家は 7.3%로 全國平均과 거의 같았으며 2ha이상은 전체農家 5.9% 보다 약간 많은 8.2%였다.

전반적으로 一般農家보다는 調査對象農家の 規模가 컸다.

農家所得階層別 分布를 보면 70萬원 미만이 12.8%, 70萬원~100萬원이 20.8%, 100萬원~130萬원이 22.7%로 130萬원이하 農家가 56.4%에 達했다. 이는 農民이 即席答辯한 所得이므로 낮게 評價되는 傾向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130萬원~160萬원이 18.4%, 160萬원~190萬원이 9.8%, 190萬원~220萬원이 8.0%, 220萬원이상이 7.4%의 分布를 보였다.

### Ⅲ. 調査內容 및 分析結果

1978年의 農水産部 10個重點施策은 다음과 같다.

- ① 食糧增産을 繼續 強力히 推進
- ② 農業生産基盤의 造成과 農地의 開發保全
- ③ 農業機械化促進과 訓練強化
- ④ 農家所得增大 第2段階方案 推進
- ⑤ 成長作目 中心의 農特事業 擴大
- ⑥ 劃期的인 畜産振興施策의 推進
- ⑦ 農協單位組合의 自立化 強力推進
- ⑧ 農漁村貯蓄增大과 住宅改良事業의 支援
- ⑨ 農村의 基幹的 營農後繼者 育成
- ⑩ 沿近海漁業振興과 遠洋漁業 對策

그리고 이의 達成을 위한 推進方法으로 農漁村經濟研究의 本格化와 農漁民과의 對話行政 強化를 내세우고 있다.

- 1) ①項 食糧增産의 持續化의 可能性과 施策

方向의 타당성을 檢證하기 위한 問項의 應答分析가. 多收穫 新品種재배에 관하여 만약 예년과 같은 政府의 強力한 陣장이 없다면 價格, 營農費, 技術등을 고려해 볼 때, 금년도에 재배面積을 작년에 비하여 어떻게 하겠는가 質問에 對한 應答分析.

<標本全體>

擴大하겠다는 農家가 27.1% 축소하겠다는 4.0% 작년水準이 27.1%, 모르겠다는 5.2% 무응답이 3.3%였다.

확대희망農家의 平均擴大面積은 1,253坪 축소희망農家의 平均面積은 623坪이었다.

<地域別 比較>

擴大意思農家의 比重이 가장 높은 地域은 경기도로 68.9%이며, 다음은 忠南이 65.7%로 나타났으며, 畚이 적은 제주도는 그 特殊한 여건 때문에 12.9%로 제일 낮았다.

한편 다른 地域에서도 재배面積 擴大 意思者가 60%를 瞞들고 있었다.

縮少하겠다는 比重은 제주도가 6.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京南이 5.5% 京북이 5.0% 全北이 4.4%의 順이며 경기도가 1.8%로 가장 낮았다.

확대희망면적은 京南이 2,141坪으로 他地域에 비해 월등하게 컸으며 경기도에서 축소하겠다는

면적이 1,667坪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年齡別 比較>

新品種면적 擴大希望者를 年齡層으로 보면 20代는 56.9%, 30代는 59.3%, 40代는 61.2%, 50代는 62.2%로 점차 높아져서 60代以上은 70.0%에 이르고 있다.

<耕地規模別 比較>

耕地規模가 클수록 新品種擴大意思를 많이 나타냈고, 擴大希望面積도 넓었다.

0.5ha미만은 55.8%가 擴大意思를 보였으며 平均希望面積은 584坪이었다.

0.5~1.0ha階層은 59.6%가 平均 1.142坪의 擴大意思를, 1.0~1.5ha는 63.7%가 平均 1,021坪을 1.0~2.0ha는 64.2%가 平均 1,052坪을 2.0ha以上 農家는 가장 많은 65.9%가 平均 2,036坪의 擴大재배를 원하였다.

2) 農民들이 新品種 栽培技術에 관한 要望을 묻은 바 그 內容은 다음과 같다.

<비 新品種栽培技術에 관한 全體의 見解>

아직은 政府의 繼續인 技術指導가 必要하다고 80.5%, 栽培技術 習得은 이미 잘되어 있다고는 見解가 17.0%였다.

<地域別 比較>

全南은 86%가 技術指導를 願하고 있으며 江原이 83%, 忠南이 82.3%, 가장 낮은 濟州는 71%였다.

<年齡別 學力別 比較>

60세이상의 계층에서는 95%가 技術指導를 바라고 있으나 그외의 계층은 年齡이 낮을수록 指導를 안받아도 될 것으로 보고 있어 20代는 75.8%만이 願하고 있고 그외의 계층은 80% 내외가 계속 指導를 바라고 있다.

당연한 일이지만 學力이 낮을수록 指導를 바라고 있어 無學은 85.4%이며, 國卒 81.9% 中卒

<表 2> 地域別 意思比較

地域	單位：%							
	區分	擴大	縮少	不變	不知	無應答	擴大希望	縮少希望
京 畿		68.9	1.8	17.7	6.1	5.5	1,255	1,667
江 原		56.4	4.3	35.1	4.3	0.0	896	700
忠 北		65.0	1.9	28.2	3.9	1.0	772	1,000
忠 南		65.7	3.4	24.6	4.6	1.7	1,027	467
全 北		65.0	4.4	22.8	6.1	1.7	1,195	700
全 南		62.4	3.6	28.8	3.2	2.0	886	489
慶 北		54.2	5.0	31.5	5.4	3.8	1,434	819
慶 南		57.2	5.5	29.7	3.0	4.7	2,141	200
濟 州		12.9	6.5	19.4	35.5	25.8	750	750

<表 3> 水稻新品種栽培技術水準에 對한 地域別見解  
單位：%

地域	區分	習得充分	아직 技術 指導 必要	不 知	無 應 答
京	畿	18.9	75.6	2.4	3.0
江	原	17.0	83.0	0.0	0.0
忠	北	16.5	81.6	1.0	1.0
忠	南	16.0	82.3	1.1	0.6
全	北	16.7	81.1	0.6	1.7
全	南	12.4	86.0	0.0	1.6
慶	北	20.0	79.2	0.4	0.4
慶	南	20.3	77.5	1.3	0.8
濟	州	3.2	71.0	9.7	16.1

81.1%로 거의 비슷하며 高率以上은 76.7%였다.

3) 앞으로 政府에서 콩, 밀, 옥수수등의 田作物에 對해서 價格보장 등 積極적인 支援을 해준다면 어떻게 應하겠느냐는 質問에 對해 전체의 69.2%가 擴大의사를 18.8%가 그때 가서 보아야 알겠다는 不確實意思者이였으며 여건에 따라 不可能하다는 農民을 包含한 9.4%는 재배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平均擴大希望面積은 콩 679坪, 밀 442坪, 옥수수 384坪였다.

<地域別 比較>

田이 많은 江原道가 78.7%로 他道에 比해 擴大의사가 가장 많았으며 其他 道는 66.5%~71.6%의 高率 分布를 보였다. 다만 全北은 61.1%로 가장 낮았다.

地域別 擴大面積은 콩과 밀의 경우 제주도가 각각 2,414坪, 776坪으로 가장 넓었고 옥수수는 主産地인 江原道가 2,872坪으로 월등히 컸다.

<耕地規模別 比較>

콩·밀·옥수수 등 밭작물의 栽培面積을 擴大하겠다는 農家は 無耕地農家の 60.9%, 0.5ha 미만 農家は 59.4%였으나 耕地面積이 넓을수록 늘어나 0.5~1ha에서는 67.9%, 1.0~1.5ha는 72.9%, 1.5~2.0ha는 73.4% 2ha 以上은 77.2%였다.

4) 農家所得增大의 큰 몫을 차지하는 韓牛飼育의 문제점을 發露하기 위하여 飼育의 目標와 애로를 조사했다.

<標本全體>

암소를 기르는 경우 가장 收支가 맞는 方法에 對해서, 송아지生産 爲主가 56.8%로 가장 많았고 6~12개월 飼育後 판매가 21.7% 1~2년 飼育後 판매가 18.4%로 큰 차이가 없었다.

숫소의 경우에는 6개월~1年 기르다 파는 것이 47.2%, 1~2년 기르다 파는 것이 39.1%였고, 6개월만 기르다 파는 것이 오히려 수지가 맞다고 보는 見解도 10%나 되었다.

地域別로 보면 암소의 境遇 各 地域 同一하게 송아지를 生産하는 것이 가장 수지가 맞는 飼育方法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意見이고 6~12個月 飼育하다가 파는 경우와 1~2年 飼育하였다 파는 경우의 수지 程度는 거의 비슷한 比率을 보이고 있었다.

특히 江原道와 濟州道에서 송아지生産이 수지가 맞는다고 본 比率이 他道에 比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忠北에서는 송아지 生産이나 6~12개월 사육하였다 파는 경우의 意思가 별 큰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숫소의 경우는 대개 6個月내지 12個月 程度 肥育하는 것이 수지가 맞는다고 보고 있다.

1年内지 2年 키웠다 파는 것도 收支가 맞는다고 보는 農家도 많이 있으며, 특히 全南과 濟州道에서는 오히려 그 比率이 높다.

암소의 경우 「송아지生産」이 가장 收支가 맞는다는 意見은 男子보다는 女子가 높았고, 一般 農民보다는 새마을指導者가 높았다. 學力水準別로는 學力이 높아질수록 송아지生産은 經濟性이 적다고 보고 있었으며, 耕地 規模別로는 계층간 에 큰 차이가 없었다.

<表 4> 田作物 재배확대에 대한 地域別 意思 單位：%

區分 地域	擴大 意思 없다	不知	無 應答	擴大面積(坪)			
				콩	밭	옥수수	
京畿	66.5	10.4	20.1	3.0	592	439	242
江原	78.7	5.3	16.0	0.0	1,293	454	2,872
忠北	68.0	10.7	19.4	1.9	536	317	268
忠南	71.4	9.1	18.3	1.1	648	449	232
全北	61.1	12.8	22.8	3.3	608	541	143
全南	68.4	10.0	18.4	3.2	596	332	127
慶北	70.8	7.7	18.5	3.1	704	443	215
慶南	71.6	9.3	16.1	3.0	440	491	166
濟州	67.7	6.5	22.6	3.2	2,414	776	257

<表 5> 地域別 意思 單位：%

區分 地域	암소의 境遇				숫소의 境遇			
	송아지 6~12 개월 生産	1~2 年 飼育	無 應 答		송아지 6~12 개월 飼育	1~2 年 飼育	無 應 答	
京畿	56.1	20.7	19.5	3.7	11.6	45.1	39.0	4.3
江原	63.1	16.0	16.0	0.0	11.7	44.7	43.6	0.0
忠北	46.6	32.0	17.5	3.9	17.5	49.5	31.1	1.9
忠南	53.7	20.6	24.0	1.7	11.4	46.3	39.4	2.9
全北	50.0	24.4	21.1	4.4	10.0	52.2	34.4	3.3
全南	54.4	20.4	22.0	3.2	4.8	40.8	50.0	4.4
慶北	62.3	19.2	16.2	2.3	8.5	54.6	33.8	3.1
慶南	59.7	25.0	12.3	3.0	12.3	48.3	34.3	5.1
濟州	67.7	12.9	9.7	9.7	3.2	19.4	64.5	12.9

또한 所得水準別로 比較하여도 各계층간 큰 차이는 없으나, 특히 160~190萬원의 계층에서 가장 높은 比率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숫소의 경우 飼育程度에 따른 수지의 비중을 보면 남자의 경우에는 6~12個月 飼育하였다가 파는 것이 1~2년 사육하였다 파는 것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여자의 경우는 6~12個月 飼育판매나 1~2年飼育판매의 比率이 거의 같은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年齡別로는 年齡이 많을수록 단기飼育판매 比率은 낮아지고 있는 反面, 1~2年の 장기 비육 비율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학력別로는 학력이 높아질수록 단기사육 판매를 원하고 있었으며, 소득이 높아질수록 단기사

육을 주장하나 190~220萬원의 農家에서는 장기 사육이 단기사육보다 수지가 더 맞는다고 보고 있었다.

5) 農村에서 소를 기르는데 가장 큰 애로점은 어떤 것이 있는가.

全體的으로 소 價格의 變動이 너무 심하다가 35.1%로 가장 높았고, 농후사료 구입난이 25.3%로 다음이며, 농후사료 가격변동 18.8%, 매매속임수 18.3%로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地域別로 소 價格問題와 농후사료問題를 對比하여 분석해 보면, 대체로 소價格에 더 큰 애로점을 느끼고 있었으며, 특히 경기, 강원, 제주도에서 소價格에 對한 애로점이 他道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충남, 전남, 경남에서는 농후사료 購入難에 더 큰 애로를 느끼고 있었다.

소 價格 問題와 농후사료問題를 대비하여 분석한 結果에 의하면, 一般農民과 새마을 指導者 사이에는 별 차이가 없었으며 年齡別로는 청년층은 소 가격 문제를, 장년층에서는 농후사료 문제에 애로를 相對的으로 크게 느끼고 있어, 청년층은 收益性에 비중을, 장년층은 生産活動自體에 비중을 두고 있음이 들어났다.

학력別로는 저학력계층에서는 소 價格問題에 고학력계층에서는 농후사료에 애로를 느끼고 있

<表 6> 地域別 意思 單位：%

區分 地域	소 價格			濃厚 飼料			無 應 答
	牛 價格 變動	賣 買 속 임 수 計	計	價格 變動	購 入 難 計	計	
京畿	36.0	28.0	64.0	12.2	17.7	29.9	6.1
江原	35.1	37.2	62.3	9.6	18.1	27.7	0.0
忠北	39.8	17.5	57.3	15.5	26.2	41.7	1.0
忠南	34.3	10.3	44.6	28.0	24.0	52.0	3.4
全北	35.0	18.3	53.3	20.6	24.4	45.0	1.7
全南	33.2	12.4	45.6	26.0	26.4	52.4	2.0
慶北	39.6	17.7	57.3	15.0	25.8	40.8	1.9
慶南	26.7	18.6	45.3	18.6	33.9	52.5	2.1
濟州	54.8	6.5	61.3	9.7	19.4	29.1	9.7

었다. 경지가 없는 農家は 농후사료에 큰 애로가 있었으며, 1~1.5ha 계층의 農家에서는 소價格과 농후사료에 비등한 애로를 느끼고 있었다.

이를 中心으로 耕地規模가 커질수록 또 작아질수록 사료문제보다는 소 가격에 애로점을 느끼는 강도가 커지고 있었다.

6) 農繁期 특히 移秧期와 收穫期의 勞動力 不足 狀態가 어느 程度인가.

매우 不足하다는 意見이 24.1%, 不足하다는 意見이 59.5%로 合計 83.6%로 勞動力 不足 狀態의 심각함을 나타냈다.

충분하다는 응답도 慶北山間地域에서 數件이었는데 家族勞動力이 充分한 特例로 추측된다. 그저 그렇다는 應答도 13.7% 있었다.

#### <地域別 勞動力 不足 狀況>

地域차이가 크지는 않았으나 특히 忠北, 全北 全南, 慶南이 심각한 편이었다.

農村勞動力이 不足하다는 應答者를 分類하면 女子보다는 男子가 새마을指導者보다는 一般農家層에서 더 不足함을 느끼고 있으며, 中年層以上에서 勞動力의 不足現象을 더 絶감하게 느끼고 있었다.

學力別로는 學力이 높을수록 農村勞動力이 不足하다는 意見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耕地規模가 커질수록, 所得이 높을수록 農村의 일손이 달린다고 하는 意見이 많다.

7) 마을內에서 해마다 마을 協定勞賃을 결정하는지 여부.

協議決定한다는 마을이 76.4%이었고 決定하지 않는다는 마을이 22.8%이었다. 1977年度 모심을 때의 勞賃은 男子가 1,545원으로 農協調查結果보다 약간 낮았고, 여자는 1,199원으로 農協調查結果와 비슷했다.

地域別로 보면 江原道가 勞賃協定 마을이 92.

<表 7> 地域別 比較 單位：%

區分 地域	不 足			그  저 그렇다	充 分			無應答
	아주 不足	不足	計		아주 充分	充分	計	
京 畿	22.6	57.9	80.5	15.9	0	1.8	1.8	1.8
江 原	20.2	56.4	76.6	20.2	0	3.2	3.2	0
忠 北	20.4	67.0	87.4	9.7	0	1.9	1.9	1.0
忠 南	23.4	59.4	82.8	14.3	0	2.3	2.3	0.6
全 北	27.2	59.4	86.6	10.6	0	2.2	2.2	0.6
全 南	26.0	61.2	87.2	11.2	0	0.8	0.8	0.8
慶 北	20.4	60.4	80.8	16.5	0.4	1.9	2.3	0.4
慶 南	28.4	57.2	85.6	12.3	0	1.7	1.7	0.4
濟 州	19.4	54.8	74.2	19.4	0	0.0	0.0	6.4

<表 8> 地域別 比較 單位：%

區 分 地 域	한다	안한다	無應答	'77年 모심을  때 의 協定勞賃	
				男 子	女 子
京 畿	70.1	23.0	1.8	1,576원	1,361원
江 原	92.6	7.6	0	1,371	1,160
忠 北	74.8	24.3	1.0	1,445	1,041
忠 南	73.1	26.3	0.6	1,577	1,212
全 北	77.8	22.2	0	1,546	1,241
全 南	81.2	18.4	0.4	1,347	1,088
慶 北	80.4	19.2	0.4	1,689	1,248
慶 南	72.9	26.3	0.8	1,669	1,199
濟 州	29.0	64.5	6.5	1,889	1,333

6%로 他道에 비해 월등히 높았고, 濟州道는 反對로 노임協定을 하지 않는 마을이 64.5%로 가장 많았다.

1977年度 모심을 때의 마을 協定勞賃 決定에 있어서 男子勞賃은 濟州道가 1,889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慶南北이 一般的으로 他道에 비해 높았다.

여자노임은 경기도가 1,361원으로 가장 높은 現象을 보여주고 있어 農外就業機會가 많음을 暗示하고 있다.

마을協定勞賃決定에 있어서 一般部落과 새마을 研修部落을 比較하여 보면 새마을研修部落이 協定勞賃을 맺는 마을이 一般部落보다 높았으며 77년도 모심을 때의 協定勞賃도 새마을 研修部落에서 약간 높은 추세를 보여주고 있었다.

8) 마을 附近에 出·퇴근하면서 就業할 수 있는 工場이나 事業場의 有無에 對한 調査結果.

全體的으로 없는 마을이 大部分이고 있는 마을은 17.3%에 불과했다.

마을과 工場 또는 事業場과의 距離는 平均 4.37km였으며, 출퇴근이 可能한 交通手段이 있는곳은 67%에 불과했다.

地域別로 보면 工場이나 事業場이 있는 地域中 京畿도가 23.2%로 가장 많고, 忠南이 22.9%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또한 全南이 11.6%로 가장 적은 比率를 나타내고 있었다.

마을에서 工場 또는 事業場까지의 平均거리는 全北이 5.70km로 가장 멀고 面積이 좁은 제주도의 2.40km로 가장 가까웠다.

출·퇴근이 可能한 交通편은 제주도가 100%로 가장 편리 했으며 全南이 48.3%에 불과해 他道에 比해 交通이 불편함을 나타냈다.

9) 마을附近의 工場이나 事業場에 就業하고 있는 家族이 있는가.

全體的인 應答은 大部分의 農家가 業者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業者가 있는 農家は 5.5%에 불과 했다.

무응답農家 23.6% 속에는 인근도시나 대도시 취업자가 포함된 것 같다.

地域別로 大部分의 農家에 出·퇴근 業者가 없는 비율이 높았고, 충북, 강원, 경남이 취업農家가 8.0%이상으로 많은 편이었으며 전남이 2.4%로 가장 적었다.

家族中 就業하고 있는 農家를 分類하면, 새마을指導者 家族이 一般農家보다 就業比率이 높았다. 學力別로는 無學者 農家가 가장 業者가 많았으며, 耕地가 없는 農家가 耕地가 있는 農家보다 월등히 業者가 많아 約 4배에 達했다.

所得別로 보아도 70萬원미만의 저소득층 農家에서 業者의 比率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10) 農村人口가 계속 줄어드는 傾向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한 反應.

全體的으로 農村人口의 계속적 減少傾向에 對해 절대찬성하는 비율이 9.9% 찬성하는 비율이 28.9%로 나타나 일반적으로 찬성의 뜻을 표명한 農家가 38.8%로 나타났으며, 한편 절대반대 11.3%, 반대 32.5%로 반대의 뜻을 표명한 農家가 43.8%를 차지하고 있어 찬성하는 農家보다 반대하는 農家의 比率이 높았다.

地域別로 보면 주로 산촌이 많은 江原, 忠北, 慶北은 農村人口의 減少傾向에 對해 찬성比率이 높았고, 비교적 평야지대라고 생각되는 그외 지역은 반대비율이 높았다.

農村人口의 減少傾向에 對한 찬성과 반대의 비율을 대비해 보면, 여자보다 남자가 반대비율이 높았으며, 새마을指導者층에서는 반대비율이

<表 9> 地域別 比較 單位: %

區分 地域	마을 附近의 工場 또는 事業場과의 有無			交通施設의 有無			
	있다.	없다.	無應答	거리	있다	없다	無應答
京 畿	23.2	73.2	3.7	3.32	73.7	23.7	2.6
江 原	14.9	85.1	0	4.93	64.3	28.6	7.1
忠 北	21.4	76.7	1.9	3.95	81.8	18.2	0
忠 南	22.9	74.9	2.3	4.20	60.0	27.5	12.5
全 北	12.8	86.7	0.6	5.70	73.9	17.4	8.7
全 南	11.0	86.0	2.4	3.59	48.3	27.6	24.1
慶 北	16.5	81.2	2.3	4.19	65.1	27.9	7.0
慶 南	19.5	78.0	2.5	5.61	67.4	30.4	2.2
濟 州	16.1	83.9	0	2.40	100.0	0	0

<表 10> 地域別 應答比較 單位: %

區分 地域	있다	없다	無應答
京 畿	4.9	72.0	23.2
江 原	8.5	90.4	1.1
忠 北	8.7	69.9	21.4
忠 南	7.4	65.1	27.4
全 北	3.3	70.0	26.7
全 南	2.4	71.6	26.0
慶 北	4.6	70.0	25.4
慶 南	8.1	68.6	23.3
濟 州	3.2	67.7	29.0

<表 11> 地域別 意見比較 단위 : %

區分 地域	贊 成			모르 겠다	反 對			無 應 答
	*對 贊成	贊成 計			*對 反對	反對 計		
京 畿	6.7	27.4	34.1	14.0	36.0	13.4	49.4	2.4
江 原	17.0	36.2	53.2	13.8	27.7	5.3	33.0	0
忠 北	8.7	35.9	44.6	16.5	26.2	10.7	36.9	1.9
忠 南	12.0	20.0	32.0	17.7	35.4	14.3	49.7	0.6
全 北	12.8	21.7	34.5	17.2	31.7	15.6	47.3	1.1
全 南	7.2	29.6	36.8	17.2	30.8	12.0	42.8	3.2
慶 北	8.5	36.2	44.7	14.6	30.4	8.1	38.5	2.3
慶 南	11.0	28.8	39.8	11.0	37.3	9.7	47.0	2.1
濟 州	6.5	22.6	29.1	29.8	25.8	12.9	38.7	3.2

一般農民층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年齡別로 보면 20代에서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후계자를 決定할 시기에 있는 40代가 농촌人口 減少를 크게 반대하고 있다.

耕地規模 1ha를 분기점으로 小農일수록 農村人口 減少에 찬성비율이 높고 大農층으로 올라갈수록 반대하는 비율이 높았다.

學力別로는 無學者는 農村人口가 減少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는 반면, 그 외는 減少를 반대하고 있었다.

200만원이상의 農家所得 계층에서 農村人口의 減少를 가장 많이 반대하고 있었다.

11) 耕耘機를 所有하고 있는 農家가 어느 程度 나되며 또한 耕耘機가 없는 農家中에 今年 中 購入意思를 가진 農家의 비율을 알아 보았다.

全體의으로 耕耘機를 所有하고 있는 農家は 22.3%이었고, 없는 農家가 74.8%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耕耘機가 없는 農家中 今年 中에 購入하고자 하는 農家は 30.5%였다.

이와 반면 購入意思가 없는 農家가 62.8%로 나타나고 있었다.

地域別로는 濟州道가 他道에 비해 耕耘機 보유 비율이 32.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慶南, 京畿, 慶北이 높은 편이었다. 한편 江原이 13.8%로 가장 낮았다.

耕耘機가 없는 農家中 今年 中 購入意思가 가장 큰 地域 역시 濟州였으며, 다음은 江原, 京畿의 順이었다.

耕耘機를 所有하고 있는 農家와 今年 中에 購入意思가 있는 農家의 비율을 보면, 새마을 指導者가 一般農民보다 所有는 많으나, 購入意思에 있어서는 거의 같은 비율을 보여주었다.

<表 12> 地域別 比較 단위 : %

區分 地域	耕耘機 所有狀態			今年 中 購入意思		
	있다	없다	無 應 答	있다	없다	無 應 答
京 畿	28.0	67.7	4.3	35.1	57.7	7.2
江 原	13.8	86.2	0.0	40.7	59.3	0
忠 北	18.4	78.6	2.9	27.2	72.8	0
忠 南	20.0	78.3	1.7	29.2	63.5	7.3
全 北	17.9	78.8	3.4	22.7	70.2	7.1
全 南	16.0	80.4	3.6	26.4	64.2	9.5
慶 北	26.2	71.9	1.9	32.6	59.9	7.5
慶 南	29.2	66.9	3.8	29.1	62.0	8.9
濟 州	32.3	64.5	3.2	75.0	25.0	0

年齡別로는 60才以上 계층에서 耕耘機 所有率이 가장 높았고 購入意思는 30代 계층에서 많았다. 또한 學力水準이 높을수록 耕耘機 所有率이 높고, 購入意慾도 높았다. 耕地規模가 클수록 所得이 높을수록 所有와 購入意思가 커지고 있었다. 특히 2ha以上 大農에서는 52.5%가 이미 所有하고 있었다.

12) 營農後繼者 問題와 결부시켜 앞으로 나이가 들어서 農事를 더 이상 짓지 못하게 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應答.

아직은 모르겠다는 應答이 60.7%, 자식들 中에서 代를 이어 農事를 짓게 하겠다는 農家は 33.4% 不過하였다.

또한 田畠을 모두 팔고 廢農하겠다는 農家도 4.3%나 되었다.

地域別로 田畠을 팔고 離農하겠다는 비율이 가장 높은 地域은 慶南, 전북이며, 忠北이 1.0%로



가장 낮았다.

子息에게 代를 이어 農事를 짓게 하겠다는 비율이 가장 높은 地域은 제주도 41.9%, 충남 40.0% 이었다.

<表 13> 地域別 比較 單位：%

區分	田畝받고 廢農	자식에게 繼	아직은 모르겠다	無應答
京畿	3.0	36.0	51.9	1.8
江原	4.3	31.9	63.9	0
忠北	1.0	33.0	65.0	1.0
忠南	4.6	40.0	54.9	0.6
全北	5.0	30.6	64.4	0
全南	4.4	34.4	57.6	3.6
慶北	3.8	31.9	62.7	1.5
慶南	6.8	29.7	61.9	1.7
濟州	3.2	41.9	54.8	0

「자식중에서 代를 이어 農事를 짓게 하겠다」는 반응은 女子보다는 男子, 一般農家보다는 새마을指導者가 높았다.

年齡別로는 50代가 가장 높았고 20代가 가장 낮았다.

學力水準이 높을수록 代를 잇게 하겠다는 비율은 낮아지고 있었으며 1.0~1.5ha의 中農층이 38.2%로 가장 많았고, 大農과 영세농은 적었다 農家所得水準別로는 각 계층간 큰 차가 없지만, 역시 中農층이 37.7%로 가장 높았다.

13) 만약 所得이 올라 앞으로 집안살림에 더 여유가 생긴다면 우선적으로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에 대한 反應.

子女教育이 36.7%로 가장 높은 順位이고 土地를 사서 農事를 늘리겠다가 27.6%, 農機械를 장만하겠다가 12.9%, 貯蓄을 하겠다가 9.9%이었다.

地域別로는 子女教育熱이 가장 높은 地域은 全北이었으며, 다른 道는 비슷하였다.

土地를 購入하겠다는 比率이 가장 높은 地域은 濟州였으며 農機械購入 希望은 慶南을 빼고

<表 14> 地域別 希望比較 單位：%

區分	土地 購入	子女 教育	生活 用品 購入	貯蓄	修 理	觀光	農機 械 購入	無應 答
京畿	29.2	34.3	3.5	7.5	4.6	0.8	13.3	6.7
江原	30.5	35.5	2.9	10.2	5.0	1.3	14.6	0
忠北	28.4	35.2	3.2	8.0	4.9	1.1	15.7	3.4
忠南	29.3	37.8	2.4	8.5	5.6	1.3	13.1	2.1
全北	26.1	40.1	3.6	9.5	5.1	1.0	14.7	0
全南	27.0	36.1	4.1	10.1	4.6	0.9	13.2	4.1
慶北	26.1	36.0	3.7	9.5	5.8	1.0	12.2	5.7
慶南	28.1	34.7	3.3	13.8	4.4	0.8	9.9	5.1
濟州	32.3	36.0	0.5	10.8	2.7	1.6	16.1	0

各道가 비슷하다.

農家에서 所得이 오르면 우선적으로 하고 싶은 일중 「자녀교육」에 있어서는 女子의 關心度가 男子보다 높았으며, 一般農民보다 새마을指導者의 慾求가 強하게 나타났다. 또 年齡別로는 40代以上에서 이 關心度가 더 높았으며 學力水準이 낮을수록 關心度가 強烈하였다. 또 耕地가 없거나 작은 農家와 所得이 낮은 農家에서 子女教育關心이 높게 나타났다.

「土地購入」에 對한 意思를 보면 男子가 女子보다 높았고, 60才以上の 年齡층에서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學力水準別로는 거의 비슷한 比率이었다.

耕地規模가 작은 農家일수록, 所得이 낮은 農家일수록 土地購入慾이 높았다.

「農機械購入」에 대한 農民의 意思를보면 女子보다 男子의 비율이 높았으며 새마을指導者보다 一般農民의 農機械購入意思가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年齡이 낮은 계층일수록 學力水準이 높은 高卒以上에서 農機械購入意思가 強하였다.

#### Ⅳ. 調查 및 分析의 問題點

어떤 秩序, 어느 社會에서도 極端은 例外로 通한다. 이번 農村調查에도 그와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耕地規模와 農家所得은 대체로 正比例하고 있다. 따라서 問題에 對한 關心이나 反應이 規模나 所得에 正比例 혹은 逆比例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勞動力의 不足을 耕地나 所得이 많은 農家일수록 더 느낀다면가 所得이 늘어나면 農機具를 購入하겠다는 意思表示, 그리고 逆順으로 土地購入慾求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無耕地 農民이나 2.0ha以上의 大農, 年間所得 70萬圓以下農家와 220萬圓以上農家에 서는 異變이 일어나기 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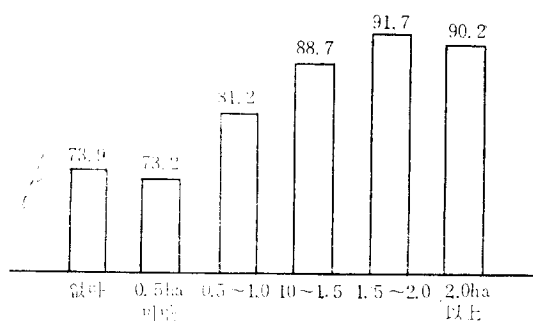
우리나라農家の 約 5%가 出退勤 就業家族이 있는데 유독 無耕地農民은 21.7%가 就業家族이 있었다.

또한 農繁期 일손不足에 對해 耕地面積別로 느낌이 달라 0.5ha=73.2%, 0.5~1.0ha=81.2%, 1.0~1.5ha=88.7%, 1.5~2.0ha=91.7%로 面積의 크기와 正比例하는데 無耕地 農家は 0.5ha미만 農家보다도 더 심각하게 보며 2.0ha以上 農家は 1.5~2.0ha 農家보다 오히려 일손不足을 덜 느낀다는 事實이 밝혀졌다. 당연한 귀결이지만 水稻新品種 栽培擴大 意思도 無耕地農家は 他階層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적었고 出退勤 就業者的 경우는 年間所得 130萬圓 5.9%로 부터 所得이 늘수록 比率은 줄어 220만圓이 되면 2.5%가 되었다. 그러나 220萬圓이상의 農家에서는 5.5%가 就業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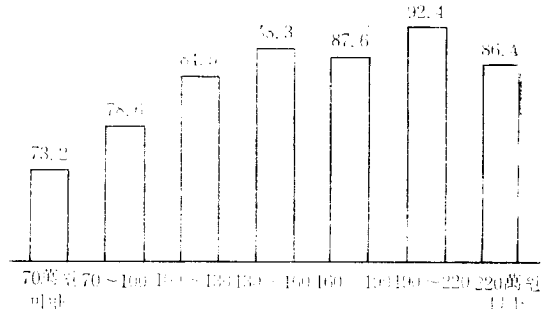
따라서 趨勢를 알기 위해서나 좀 더 活用價値가 큰 平均値를 抽出하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 無耕地 農民 또는 70만圓以下의 農家나 2.0ha以上 또는 220만圓 以上 農家를 排除하고 考慮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現象은 특수한 社會經濟的 與件的

<圖 1> 耕地規模別 農繁期人力不足反應



<圖 2> 農家所得水準別 農繁期 人力不足反應



地域, 即 濟州道나 島嶼地方, 漁村이나 山村의 경우에도 發生한다.

그 例로 農繁期에는 70~80%의 마을이 協定 勞賃을 定하는데 濟州道는 29%만이 協定勞賃을 定하며 畜飼育의 경우 39.1%의 農家가 1~2년 飼育後 판매를 理想型으로 보는데 反해 濟州道는 出荷條件이 다르므로 64.5%가 1~2年飼育을 理想的이라고 보고 있다.

零細農과 大農 또는 企業農을 例外로 處理해야 할 경우가 있는 것처럼 濟州道와 島嶼地方, 漁村, 鑛山村, 山村등은 調查目的에 따라 적절하게 配慮해야 할 것이며 可能하면 別途로 獨立된 調查나 別途의 處理가 必要하다고 思料된다.